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협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열심히 일한 만큼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난 시절의 회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지. 이것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혜진이와 같은 미래 세대에게도 남아 있는 과제란다.

장애나 성별 혹은 가난을 이유로 이웃이나 친구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다짐,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자세, 너희 세대들이 그런 것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그 어려웠던 긴급조치 시절,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보람이 생기는 것이란다.

혜진이의 꿈이 꼭 이루어져 우리 나라의 정치가 더욱 더 발전해 가기를 기원한다. 다시 만날 때는 혜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은 이만.

45주년 4.19 날에 우원식 씀.

## \_숨술한 기억-1979년 9월 정기 고연진 시위



이 명 식 고려대 행정학과 76학번,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당보주간, 노무현대통령후보 덕양을선거대책위원장, 참여시대고양포럼 이사장(현)

### 식막한 시절

긴급조치9호가 선포된 이후 30년이 흘렀다. 까마득한 옛 일인데 지금도 긴급조치 시대를 머리에 떠올리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과연 박정희 독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박정희 이외의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시절을 모두 보냈으니 가슴이 확 막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75년도에 긴급조치가 발동되었고,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해제되었으니 76학번의 경우는 대학 4년을 긴급조치 하에서 몽땅 보낸 셈이다.

긴급조치9호 상태의 대학에서는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대학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고, 학교 정문 바로 입구에 경찰들이 출퇴근을 체크하고 지시를 받는 초소가 운영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76년에 고대 법대에 입학해서는 남들처럼 고사를 볼까 생각도 했지만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유신헌법을 사법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대학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 속 으로부터 용납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연히 그들과 어울려 처음에는 술을 마시며 유신과 긴급조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 울분을 토로했다. 그 뒤 모여서 책 읽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차츰 문제학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시절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1, 2학년 때는 학습에 열을 올린다고, 3학년이 되면서부터 유신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하였다. 75년 긴급조치7호 이후 짓눌려 있던 고려대의 학생운동도 78년도에는 차츰 활기를 띠게 되었고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 둘 시위를 조직하거나 유인물 사건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일이 잦아졌다.

78년 9월 천상만 선배, 이해자 선배, 오상석이 주도한 데모가 크게 성공하고 난 이후, 나는 경제과 76학번 임주웅으로부터 후속 데모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 시점에 시위를 주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고민하다가 내가 다니던 행정학과 76동기인 유구영에게 임주웅의 뜻을 전달했다. 유구영은 흔쾌히 수락하고 둘이 11월에 시위를 주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78년 겨울 동안 여러 친구들과 이듬 해 학내운동을 끌어갈 모색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다. 그런데 4월 초에 시위를 하기로 의논하고 준비하던 중 나는 3월 말에 갑자기 성북서로 연행되고 말았다.

이때 함께 연행된 친구들이 법학과의 김현식, 강경탁, 정외과의 이내영 그리고 나까지 모두 4명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성북서에 끌려가서 실컷 얻어맞고 보니 겨울방학 중 모임을 빌미로 사전연행했고 학내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악랄한 의도에 걸려든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제적당한 김현식과 이내영은 바로 군대로 끌려갔고 무기정학을 당한 나와 강경탁은 각각 고향에 내려가서 군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 설훈 선배와의 만남

설훈 선배는 79년 7월 17일 체현절 특사로 출소했는데 그해 8월경에 부산에서 조성우 선배 등 학생운동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여러 학교 출신들이 모인 자리가 파하고 나서 고대 선후배들만 자리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79년 전반기 학내운동이 침체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2학기에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

다. 그 자리에서 무기정학 상태로 군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이명식과 강경탁이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둘 다 지방에 있는 관계로 서울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데 7월 17일 출소한 설훈 선배가 스스로 2학기 시위를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미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니 학내에서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정기 고연전이 끝나고 시가행진을 벌일 때 가두에서 시위를 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대규모 시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연대 측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되지 않은 선배가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2학기 학내 시위는 그 스케줄에 맞춰 정리가 되었다. 그 자리에서 78년에 감옥에 갔다가 설훈 선배와 함께 7월 17일 출소한 경제과 76학번 이승환이 학내와 연결하여 준비를 맡고 설훈 선배가 연대 측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때가 되면 강경탁과 이명식은 상경하여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나는 9월 하순에 부모님에게는 군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말씀드리고 상경했다. 서울에서 설훈 선배를 만나니 강경탁과 이명식 이외에 중문과의 김하림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른 준비는 차질없이 되었는데 연대 측과는 협의가 잘 안되어서 따로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정대로 9월 29일 정기 고연전 끝나고 시가행진할 때 시위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유인물 등사와 플래카드 준비였는데 등사기는 부산에서 내가 구입해 둔 것을 찾아서 쓰기로 했고 장소는 돌아가신 김승훈 신부님이 계시던 동대문 성당으로 정했다. 김승훈 신부님은 장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유인물을 당신 승용차에 실어서 안전하게 시위현장으로 보내 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설훈 선배와 나 그리고 강경탁은 도움을 주신 김승훈 신부님에게 사후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수원에 내려가서 여관에서 1박하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인근 야산에 등사기를 묻었다.

9월 2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축구가 끝나고 고대생들이 울지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했고 각자 등에 메는 가방에 유인물과 플래카드를 담은 세 사람은 행진대열에 합류했다. 행렬이 울지로 4가에 도달할 무렵 미리 연락되어 있던 이념서클 후배들이 많이 포진한 대열 앞머리에서 우리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유인물을 뿌렸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우리가 외치는 구호를 따라 호응하는데 대열 뒤편까지 구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

았다. 그뿐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대열에서 응원기와 뒤섞여 시위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해 고대 응원기는 징기스칸, YMCA 이런 노래들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이 노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는 순간, 앞 대열은 이미 명동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상황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설훈 선배는 갑자기 행렬 앞 쪽으로 튀어나가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나와 강경택이 막 앞으로 따라 나가려 할 무렵 행렬 옆을 따라붙던 사복경찰들이 순식간에 설훈 선배를 낚아채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행진대열은 명동으로 접어들었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렸다.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고 어이없이 실패하고 만 나와 강경택은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명동상당에서 담배를 한대 피우고 일단 각자 도피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상황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 해야할 지 멍멍했고 잡혀간 설훈 선배 걱정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결국 일단 부산에 가서 상황을 보기로 하고 내려갔는데 가진 돈이 없어서 친척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경찰에게 꼬리를 밟혀 잡히고 말았다. 성복서로 연행되어 오니 설훈 선배는 이미 엄청나게 맞고 고문을 당한 상태라 눈 뜨고 보기가 참담할 정도였다. 나도 잡히지 않은 강경택이 숨은 곳을 캐려는 경찰들에게 엄청 당해야 했다. 결국 강경택도 비슷한 상황이라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잡혀오고 말았다. 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한 중문과의 김하림도 성복서에 잡혀왔고 4명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쓸쓸한,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

그토록 고민하고 초조하게 준비했던 나의 첫 시위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의기소침한 상태로 있었지만 7월 17일 출소하여 곧바로 다시 시위를 벌인 설훈 선배는 전혀 달랐다. 후배들 보다 훨씬 심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다보면 질 때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맨날 지더라도 한 번만 이기면 된다”며 경찰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오히려 우리들을 격려해 주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성복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에 넘어가기 전에 진술서 말미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라고 했는데 설훈 선배는 “박정희가 죽

고 유신독재가 끝날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서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조사하던 김홍원(학생들을 밥먹듯이 고문하는 악질 경찰)이 나에게 할려면 설훈이 같이 화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며 편지를 주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주도했던 79년 정기 고연전 가두시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설훈 선배의 말씀 대로 유신독재는 한달도 가지 못해 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감옥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어머니에게서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였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시위를 하고 감옥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나에게 거는 어머니의 기대였다. 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기대에 보답할 수가 없었다. 감옥에서도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했을까 가장 고민했는데 뜻밖에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남에게 몹쓸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건강에 주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라”는 격려와 위로를 담은 편지를 보내 주신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렸다.

서대문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인데 갑자기 구치소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바뀌었다. 알고 보니 10.26이 발발했고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자 긴급조치 사범은 조만간 모두 출소할 것이란 소문이 떠돌았다.

그때부터 징역이 완전히 풀려 긴급조치 위반 학생들은 3, 4명씩 원하는 대로 합방하여 같이 공부도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당시 이미 다른 시위 사건으로 들어와 있던 이경재, 유재욱 등 고려대 후배들과 이때 감옥에서 반갑게 만나 한방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9일 경에 긴급조치로 구속되어 있던 학생들은 모두 구속취소(긴급조치 자체가 없어졌음으로 인해)로 석방되었다.

얼떨결에 감옥에서 나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채 며칠 보냈는데 소위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갑자기 전두환의 대머리(계엄합동 수사본부장이란 이름으로)가 TV에 등장하고 있었다. 며칠 뒤에 설훈 선배를 만났더니 이제 다시 전두환과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

결국 박정희가 죽고 긴급조치가 끝나긴 했지만 진정한 봄이 올 날은 아직 멀었고 그렇게 79년은 저물고 80년이 밝아오고 있었다.

## 함성 또 함성의 '79년 서울대



이원주\_ 서울대 국어교육과 76학번, 인천민중교육연구원, 전국노동운동협의회 정책실장, 민주당 청년위원장, 사회평론기자, 교보생명 Financial Planner(현)

1976년 3월 어느 날 서울대 교정. 인문대앞 게시판에 다닥다닥 나붙은 각종 서클<sup>1)</sup>들의 신입회원 모집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한 신입생이 있었다. 전공은 어차피 2학년에 올라가서부터 본격 공부하게 되니 1학년 때에는 교양을 넓히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철학개론, 사회학개론, 과학사개론 같은 전공 외 교양강좌를 최대한 수강 신청한 터였다. 거기에 더하여 대학의 정식 커리큘럼이 아닌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부겸 친교를 넓히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들어갈 만한 서클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성실, 노력, 지식과 같은 필연적 요소이겠지만 그 방향을 돌리는 것은 우연의 힘이 때로 크다. 이 우연한 선택이 이후 그의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선택이 되리라는 건 그도 미처 알지 못했다.

몇 달 지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간 '사회과학회'<sup>2)</sup>의 서른 명에

1) 뒤에 후배들이 쓰기 시작한 동아리가 훨씬 정감이 가는 좋은 말이지만 여기서는 70년대 당시의 분위기를 가능한 전하기 위해 그 때 쓰던 그대로 서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